

북스

Books

과거시험 부정 저질렀던 양반들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허인욱 지음

발목을 만지며 우는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훈장, 키득 키득 웃고 있는 아이들. 김홍도의 그림 '서당'에 담긴 풍경이다. 이 그림에는 당시 양반들의 교육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학생들은 갓을 쓰거나 땀기머리를 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서당에 모여 공부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역사학자 허인욱의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은 양반의 삶을 담아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조선 양반의 일대기를 옛그림과 옛글로 더듬었다. 김홍도, 김준근 등 조선 후기 화가들의 풍속화와 작자 미상의 민화, 옛사람들의 문집 등에서 찾아낸 조각들을 짜맞춰 구성했다.

부정에 대해 철저했던 과거 제도가 눈에 띈다. 말썽을 풀기 위해 과거 시험장소를 두세 곳으로 나누는 분소법(分所法)을 적용했다. 응시자인 거자(擧子)와 시험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아버지와 아들도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용재총화'의 기록을 보면 시험 당일 새벽 응시자들을 모아 한 명씩 이름을 불러 시험장에 들여보냈다. 부정을 막기 위해 붓집과 상자, 옷깃까지 철저히 조사했으며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결박되고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김준근 작 '서당 풍경'.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처벌도 혹독했다. 시험장 밖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3년, 안에서 들켜면 6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수험생들은 또 시험 열흘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관직과 성명, 본관, 거주지 등을 기록한 것이다. 보단자는 6품 이상의 조관이 서명날인한 신분보증서였다.

응시자들은 시험지 뒷부분이나 끝에 본인의 관직, 이름, 나이, 본관, 거주지 그리고 사조(四祖)의 이름, 본관을 쓰고 관원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종이를 붙이거나 원통처럼 말아올려야 했다.

이후 시험관이 유생들의 답안지에 확인 도장을 찍었고 시험이 끝나면 도장이 찍힌 답안지만 제출토록

해 사후 부정의 소지를 없앴다.

답안지를 거두는 수관관은 등록관에게 넘겨 수험생의 필적을 알 수 없도록 붉은 먹물로 옮겨 쓰도록 했다.

채점관이 영향력 있는 집안 자제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응시자를 알아 볼 수 없게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선후배, 동료끼리 짚개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한 달 정도 사찰 등에서 함께 버락치기 공부를 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또 아이가 태어나고, 장성해서 혼인을 하고, 육십갑년을 해로운 부부가 회혼례를 올리는 장면까지를 담은 '평생도의' 내용을 통해 양반의 삶을 엿본다.

(둘레개·1만7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문학 사상의 근원

올 해로 사망 100주년을 맞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자 실천적 사상가인 리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1828~1910년)의 문학작품을 다룬 비평집 '톨스토이-삶의 송고한 의미를 향해 가는 구도자'가 출간됐다.

학자이자 소설가인 앤드류 노먼 윌슨은 90권에 이르는 톨스토이 전집과 일기 등 다양한 문학작품 사료에 근거해 그의 삶의 정경과 내면심리를 유려한 문체로 면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톨스토이가 당대 러시아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끈 주인공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생애와 작품, 시대의 상관관계를 추적함으로써 문학사상의 근원에 자리잡은 정신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책세상·3만8000원)

그림책 '이산저산 꽃이 피니...'

광주 설원여고에서 국어교사로 재직중인 선석현(50)씨가 가진 장편소설 '이산저산 꽃이 피니-꿈꾸는 종부의 노래'를 출간했다.

학교에서 이야기꾼으로 통하는 그가 학생들을 위해 교지에 습작으로 낸 것을 손바퀴 엮은 것이다.

소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주인공 '영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1인칭과 3인칭 시점의 대하소설로 한 가족 3대를 잇는 가계사를 고스란히 담았다. 마치 우리 근현대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보는 듯하다.

어릴 적부터 영민했던 영자는 손재주 집안으로 시집와 한 가족을 일구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며 가족의 미래를 꿈꾸고 완성시켜 간다. 한집안의 종부이자 당찬 어머니, 여자가 아닌 어머니로서 강하고 길긴 삶의 면모를 드러낸다. 전통과 진보적인 가치관의 대립을 곳곳에서 이겨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 가며 변화하는 세상에 맞서 소임을 다한다. 마침내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다한 그녀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택한 일은 관리를 배우는 것. 그녀는 지난했던 자신의 삶을 판소리로 풀어내는데 열중한다.

작가는 소설 곳곳에 본격적인 판소리를 하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소리의 일종의 단가를 배치하고 있고 소설 제목 역시 '사할가'에서 따왔다.

평범하지만 개성 넘치는 인물, 혈연과 인연으로 얽히고설킨 방대한 스토리텔링은 소설 읽는 재미를 더한다.

구수한 사투리에 박진감 넘치는 소설에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배어있고, 나라와 가족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음을 예뻐 표현하기도 한다. 또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비뚤어진 세상에 대한 저항의식도 엿볼 수 있다.

아마추어 작가의 첫 소설이라곤 하지만 평소 소설을 읽고 가르치는 교사라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작가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살아온 우리 부모세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희생을 강요당했던 청소년과 노동자,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기록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회 신대에게 헌정하는 글"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오늘날의 중요와 헌정이 뒷세대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발해고후·1만3000원)

그림책 '이맛이다'

▲엘리스, 지식을 탐하다=루이스 캐럴이 쓴 고전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통해 철학, 심리학, 언어학 등 인문학을 탐구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얽히고설킨 세상과의 관계망 속에서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가능한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옥당·1만4000원)

▲인생, 이 맛이다=맥주광의 맥주 예산본이 된 재미삼아 맥주 만들기를 해왔던 '맥주당'이 됐다. 현재 기자인 저자는 한 달 휴가를 쓰게 되자 아예 양조장에서 일하면서 맥주에 빠져 살았다. 맥주가 인생을, 인간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맥주를 직접 만들면서 겪은 좌충우돌 에피소드 외에 머리와 가슴으로, 혀로 배우고 익힌 맥주 상식도 짚짚하게 넣었다. (해배·1만2800원)

▲왜 법의 지배인가=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은정 교수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을 펼친다. 저자는 법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영역에서 법 제도의 근본적 사안은 공동체 성원이 함께 숙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레개·1만5000원)

이산저산 꽃이 피니...

선석현 지음

광주 설원여고에서 국어교사로 재직중인 선석현(50)씨가 가진 장편소설 '이산저산 꽃이 피니-꿈꾸는 종부의 노래'를 출간했다.

학교에서 이야기꾼으로 통하는 그가 학생들을 위해 교지에 습작으로 낸 것을 손바퀴 엮은 것이다.

소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주인공 '영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1인칭과 3인칭 시점의 대하소설로 한 가족 3대를 잇는 가계사를 고스란히 담았다. 마치 우리 근현대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보는 듯하다.

어릴 적부터 영민했던 영자는 손재주 집안으로 시집와 한 가족을 일구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 누구도



꿈꾸는 종부가 부르는 애환의 노래

구수한 사투리에 박진감 넘치는 소설에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배어있고, 나라와 가족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음을 예뻐 표현하기도 한다. 또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비뚤어진 세상에 대한 저항의식도 엿볼 수 있다.

아마추어 작가의 첫 소설이라곤 하지만 평소 소설을 읽고 가르치는 교사라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작가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살아온 우리 부모세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희생을 강요당했던 청소년과 노동자,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기록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회 신대에게 헌정하는 글"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오늘날의 중요와 헌정이 뒷세대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발해고후·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223-1772 헬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인생 열쇠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는 분

■ 이유없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병고로 시달리시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062-383-8982

2-편의세상 광천동 e-편한세상

2010년 우수건설사 선정, 대통령상 수상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률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이며, 공과금저렴

■ 전여세대 별 특별할인(취.등록세 50%감면혜택)

- 111㎡ (구, 33평)
▷분양가 2억3천3백만 ▷최대할인(2천만원)
- 142㎡ (구, 43평)
▷분양가 3억5천만 ▷최대할인(6천만원)
- 164㎡ (구, 49평)
▷분양가 4억2천4백만 ▷최대할인(8천만원)
- 194㎡ (구, 58평)
▷분양가 5억7백만 ▷최대할인(1억2천만원)

■ 고객님의 만족과 성취감을 갖도록 **탐공인**과 상담 받으시고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 잡으세요!!

● 탐공인중개사 ● 대림124후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름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중 15,818㎡(4,784평)전용 되어있음,건축물637.46㎡(192.83평), 현재 셀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접.21914㎡(6,629평) 매매가1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12억원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8949.co.kr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점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 매도 3억1200만원
- 주유소 광산구 명 491평 용지 5억 교환가능 10억
- 대지, 월산동터미널부근 4차선도로변 492㎡(149평) 공시지가 5억 7천만원 매도4억3천만원
- 금남로5가 대지503㎡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4억8천
- 월동건물 남구 구동 공원길 원룸 10 투룸 2 쓰리룸 2개 대출1억 전세금1억4500만원 매도4천만원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가 3억천 매도 2억4천
- 마름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대지, 우암동 소양도로점 275㎡(83평) 1억5백
- 금남로 청암교고 뒤 주택 영일용 적합 공시가 매도 8400만원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건평 173 대출 3억 매도 6억5천

■ 매도·교환

- 송정동 4차선 도로변 2중주거지 856평 공시지가 13억8천 매도 16억 2천
- 두림타운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등 적합 평당 3700만원
- 원동 광주역 앞 대지 108평 건평 383평 투룸 17개 원룸 6개 27는 공실 전세 8500 월 650 매도 7억2천
- 화평동 해보면(문장입구) 4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550평 창고·식당·공정동 다용도 1억9300만원
- 생산녹지 창고 등 다용도 광산구 비아 2722평 13억
- 충효동 유실수 있는 담 575평 대지 10평포함 1억3천
- 북구 충효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생산녹지 서구 덕동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9천만원
- 자연녹지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부근 매도 10억9천만원
- 화순군 농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야함, 1900만원
- 화순군 한천면 일가 13,862평 공장 등 다용도 평당12000원
-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1631 평과 창고, 공시지가 14억 3천 최고는 1년 사급세 2200만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만원
- 원동건물 화정동 대지 91평 건평 145평 원룸 10개 투룸 3개 쓰리룸 2개 주택이고 전세 1억천 월380 매도 5억3천 주택은 주인이 사용
- 월동부지 여수시 풍산읍 우수리 자연녹지 562평 유자나무 클나무 많은 매도 1억 2400만원

■ 목욕탕 임대

● 북구 일곡동 APT수선세대있는 영입점 490평 보증금2억 월4500만원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서강빌딩 매각광고

(위치 : 광천파출소 사거리 대로변)

- 물건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64-6

- 면적 : 대지 : 734㎡(225평)
· 건물 : 4,764㎡(1,412평)

두암시용협동조합
총무과 TEL. 062-263-0136